

물리적 경계 넘어선 소통의 새로운 실험들

지역 간 네트워크, 그 자연스러운 욕망

김희진

인사미술공간 큐레이터

소통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확장된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 간 네트워크에 대해 글을 쓰려고 보니 막막해졌다. 특히 내 담당 분야인 ‘국제교류’ 미술 프로젝트들을 사례로 지역 간 연대와 네트워크 확장의 필요성을 짚어본다는 방향을 편집진과 같이 설정해놓고는 이제서야 끝없는 자문에 빠졌다. 마치 ‘도약하는 한국, 뻗어가는 외교’ 하는 식으로 세계지도 도처를 포물선으로 짝 짝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열거할 것도 아니면서 이 무슨 거창한 말인가. 분명 나는 해외와 연계된 미술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긴 하다. 그렇다면 일

단 확장된 소통의 장이라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소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소통은 왜 확장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과연 지리적, 양적 팽창만의 미하는 것일까... 등등의 의문이 잔뜩 생겼다. 읽다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명문은 못 쓰는 고로,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내 일에 대한 시각과 입장부터 하나씩 점검해 들어가기로 했다. 바쁘고 힘든 세상, 내 입장에서 밝

혀두면 읽는 분들의 수고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동시대 미술을 갖고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는 큐레이터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큐레이터라는 말을 뺀 전부다. 동시대, 미술, 현장, 프로그램, 개발, 기획. 나에게 미술 활동은 표현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맺으며 생각하는 방식을 키워가는 쌍방 간의 자발적인 상상 행위이다. 따라서 미술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생존과 공존을 다루는 문제라 본다. 내가 하는 일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미술 작업과 행위의 의미를 최대한 증폭,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내고, 그 방법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작가의 상상력, 학자의 지식, 사업가의 수완이 뭉뚱그려진 감

각이 필요한 일이지만, 큐레이터는 작가도, 학자도, 사업가도 아니다. 그래도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에 제일 근접해 있다. 작가가 상상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보는 사람이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상을 발휘하는 게 내 일이다. 생각할 거리와 상상의 재료를 발굴해 가공하는 것은 작가들의 몫이고, 그 과정을 창의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내 몫이다. 작가의 ‘상상’을 자극하는 방법을 ‘상상’해야 하는 사람이다보니, 방법론적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럴 때 천재가 아닌 이상 답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즉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짚어가며 찾아내야 한다.

상상하기와 생각하는는 어디서 어떻게 발원해, 어떻게 자라나는가. 또한 어떻게 전달되며,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상상의 방식이 또 어떻게 변환되어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가.

전세계의 대안잡지가 단결하다:

〈순회잡지테이블〉 아카이브

이 질문에 지난 2006년 기획했던 워크숍 〈순회잡지테이블〉(TMT: Traveling Magazine Table)이 대뜸 떠오른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작가들이 연대해 만든 ‘유목민과 거주자’(Nomads and Residents)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있다. 이들은 일정한 조직 형태나 구성 없이 프로젝트별로 자유롭게 해체모여가며 기획하는, 한마디로 상호 신뢰와 의리, 공통 관심사로 뭉친 동아리 같은 것이다. 이들은 2001년 뉴욕 현대 미술관 병설 미술관인 P.S.1의 클록타워 갤러리(Clocktower Gallery)에서 미술잡지 아카이브를 만들자는 생각을 해냈는데, 대상은 유통망 바깥에서 배회하는 비주류 미술 인쇄물들로 한정했다. 자본과 대중적 인지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미술 구조에서, 유통망을 뚫지 못하면 작가 개인이나 비영리 미술공간들의 목소리는 자

멸하게 마련인 현실이 안타까워 낸 생각이었다. 형태는 잡지부터 리플릿, 전단지, 포스터, 단행본을 가리지 않았고, 분야도 미술에서 점차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단, 아카이브에 집결된 인쇄물들은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일단 아카이브에 들어온 인쇄물의 정보는 모두 공개와 공유(open source) 원칙을 조건으로 하였다. 대신 아카이브는 유목민과 거주자가 초대되는 전 세계 각종 공간을 순회하면서 무료로 공개 열람되고, 현지의 유사 인쇄물들을 계속 포함시켜간다는 운영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처음 30여 종의 인쇄물로 허접하게 시작된 〈순회잡지테이블〉은 프로젝트 그룹 일원들이 각자 유명해지면서 입소문이 났고, 빌니우스, 뉴욕, 프랑크푸르트 각지로 순회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06년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는 그동안 공모로 모인 600여 종의 다국적 비주류 인쇄물 아카이브로 자라 있었다.

한국에서는 공모를 낼 때 언어적 장벽을 의식해 유통망 바깥에 부유하는 비주류의 목소리들의 집결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언젠가는 대안적인 독립잡지를 내보겠다는 학생부터 100부 이상 찍을 돈이 없어 손으로 제작한 단행본을 묵히고 있는 작가들까지, 목적과 관심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에게는 아카이브 인쇄물들에 담긴 내용과 구체적인 인쇄물 디자인을 보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무슨 생각을 담았건 그 내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구조에서 어떻게 공유, 전파될 수 있는지 대안적 방법을 알고 싶어했다. 유목민과 거주자 측에서 온 작가 빅반더폴(Bik van der Pol)과 나는, 한국에서 이 아카이브가 실질적으로 소통하려면 공모로 모인 한국의 ‘커뮤니티’가 원하는 방식과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고, 단순 열람전시 방식 대신 워크숍 방식을 택했다. 42명의 커뮤니티로 출발한 워크숍은 기획자들의 애초의 목적의식을 이해하고 아카이브 자

체를 충분히 열람하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의 기타 대안잡지들에 대해 연구하고 유사한 관심을 지닌 작가들을 초대해 구체적인 작업 예를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회자되는 여타 다른 잡지 동호인, 동아리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순회잡지테이블〉 워크숍이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쇄물을 공동 창작하여 대안적 유통구조망을 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이후 워크숍 과정은 커뮤니티의 에너지와 필요에 따라 움직여갔다. 공동으로 작업하되 개별의 목소리를 담은 방안을 토론하던 중, 동일한 제3의 재료를 놓고 개인 혹은 그룹별로 지면을 할당해 자유롭게 개별 작업을 한 후 단행본으로 제본하지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동 소재는 ‘한국의 민주화’로 결정됐고, 나는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협조를 얻어 현장답사와 관계자 연결을 진행하고, 번역을 지원했다. 최종 단행본 제목도 워크숍을 통해 커뮤니티가 정했다. 이어 커뮤니티 멤버들 속에서 최종 수합된 작업들을 통일할 디자이너를 선정하고, 디자이너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판형과 지면을 정하고 기초적인 형식만 통일하는 디자인 회의가 몇 차례 계속되었다.

이렇게 한 달여에 걸친 워크숍 과정을 거쳐 〈+82〉(국제전화에서 한국의 국가코드)가 공동 창작되었고, 〈순회잡지테이블〉 아카이브에 합류됐다. 홍대앞 클럽에서 노래도 하고 포스터도 만드는 애니메이션 창작과에 다니는 한 학생이 요즘 미술에서는 이런 활동도 하나고 재미있어 했던 기억이 난다. 원고마감 당일 일차로 작업을 가져왔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상원 학생도 기억난다. 대부분은 이미지 자료만 보고 작업하는데 온라인 데이터에서 고문서들을 꼼꼼히 조사, 분석해 작업해왔던 고학생 디자이너도 빼놓을 수 없다. 이 단행본에 감명을 받은 유목민과 거주자는 한동안 세계

각지에서 〈+82〉를 추가 요청하곤 했다. 지금도 〈순회잡지테이블〉은 세계 각지의 미술공간과 심포지엄 등에 초청되면서 〈+82〉를 대인 유통해 주고 있다.

이미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에서 다 노출되었지만 이 프로젝트는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필수 요건이 ‘공통 관심사’와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실천적인 참여’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 결국 우리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각자가 알아서 조사해 생각하며 찾아가는 것이고, 소통의 결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넓히고 상상하는 경험을 해보는 데서 얻어진다. 600개 이상의 생각이 담긴 아카이브를 공부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발견의 매체로 쓰는 것이다. 물론 물리적인 공간에 직접 달려가서 부딪치며 체험하는 것이 에너지를 더해줄 순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부분은 생각과 태도, 정신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였다. 기획자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점은 작가이자 기획자인 유목민과 거주자 그룹이 인쇄물이라는 매체를 작가의 분신으로 삼은 점이다. 원래 아카이브가 도서관과 달리 목적과 미션이 분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 아카이브는 작가 대신 작가의 생각을 전달, 파급시키는 상징적 매체로서 대면 인터페이스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밀착된 관계를 형성케 하는 장점까지 갖춘 장치이다. 작가적인 창의력이 가미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깊은 소통이 가능하다:

공개 낭독 프로젝트

이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소통의 경우로, 또다른 소통 방식이 고안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지난해 3월 뉴욕의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산하의 미술연구 기관인 ‘베라 리스트 미술정치센터’(The Vera List Center for Art and Politics)가 주

최한 공개낭독 행사가 열렸다. 이 프로젝트는 작가 5인(David Thorne, Katya Sander, Ashley Hunt, Sharon Hayes, Andrea Geyer)의 공동 기획 프로젝트로, 다운타운 맨해튼에 있는 저드슨 교회에서 일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 참석자들과 함께 군법재판 기록을 낭독하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 재판기록이나 읽는 것은 아니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쿠바의 판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열렸던 군사재판 기록 중 002954페이지부터 003064페이지까지 110페이지 분량을 관객과 작가들이 읽어내려갔다.

이 재판기록은 9개월간 열린 558건의 재판기록 중 미 국방부가 인터넷에 공개한 방대한 양의 재판 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판타나모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라크 병사들이 형 유예를 주장할 법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정에 따라 국방부로 하여금 공개하게 한 것이다. 재판기록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명확한 항목을 적용할 없이 피고가 ‘적군’임을 규정해버린다는지, 피고에게 이에 반박할 권리는 주면서도 합당한 법적 자문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피고가 스스로를 변호하게 하는 식의 모순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는 어찌 보면 익숙한 듯한 법적 모순의 상황보다도, 인터넷에 기록이 공개되었는데도 방대한 분량과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사람들이 참을성 있게 읽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공개 원칙은 지키면서도 지치고 바쁜 사람들의 일상적 타성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 공개는 공개이나 실질적 공개 상황이 안 되는 이 지점에 대해 작가들이 취한 방법은 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직접 자료를 읽는 자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관객들은 다섯 시간 동안 직접 판사, 피고 등의 역할을 맡아 교대로 읽어나갔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나 청중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는 식의 단순한 계몽적 태도를 유보하고 직접 사고하고 각자의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작가들은 전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대본>(Scripts)이라는 연작 시리즈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대본> 시리즈는 이후 이라크전 상황과 국내 정세, 여론이 변해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같은 해 가을 독일 카셀에서 열린 <도큐멘타 12>에서 같은 작가들은 역시 공개 낭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전시 국가로부터의 9개 대본>(9 Scripts from a Nation at War)이라는 10 채널 비디오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이 작업은 “전쟁은 당신이 생각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전쟁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입장을 어떻게 형성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담긴 질문지를 작성하여 미국과 이라크의 작가, 군인, 학생, 죄수, 학자, 주부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있는 사람들 9명에게 답하게 한 후 서로 답지를 바꿔 읽어보게 하고, 낭독 과정을 녹화한 비디오 작업이다. 앞서 뉴욕에서 진행했던 공개 낭독회 이후, 작가들은 낭독 과정에 참가자들이 글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과정을 첨가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텍스트를 읽기만 할 때 몰입과 감정이입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했다. 질문지 작성과 낭독이 결합된 이 방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업 모듈이 되어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혹은 커뮤니티에서 얼마든지 차용, 적용, 심지어 변용시켜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작업은 우리가 소통의 방식과 범위를 ‘대면 접촉’이라는 정통 방식에 의존하는 물리적인 경계에 준해 설정해두고 있지 않았나 자문케 해준다. 예컨대 아프카니스탄이나 팔레스타인, 보스니아 같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고 하면 대담 한국 작가를 그 지역에—아무리 장기간이라 하여도—거주시키면서 두 지역을 연계하는 차원의 표현을 요청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곤 했다.

교류, 사람살이의 자연스러운 욕망

위에 살펴본 프로젝트들에는 공공(publicness)이니, 행위(performativity)니, 대화(conversation)니, 과정(process)이니, 소통(communication)이니, 협업(collaboration)이니, 집단창작(collective)이니, 공동체(community)니, 교류(exchange)니 하는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다. 동시대 미술작업에서 말하는 트렌디한 요소들은 다 집결된 셈인데, 그렇다고 이런 작업들이 최상의 세련된 형식적 방법론을 구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절대적인 지리적 거리와 언어, 문화 차이가 있는 경우 소통의 방식을 자연스럽게 고민, 모색해본 정도로 보면 된다. 일상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흔히 쓰는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행위를 빌린 미술 활동인 것이다.

여기서 글머리에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보고자 한다. 상상하기와 생각하기는 어디서 어떻게 발원되어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전달되며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과 상상의 방식이 또 어떻게 변환되어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는가. 내가 얻은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체의 상상과 생각은 우리가 지지고 묶고 살아가는 일상생활 도처에서 만들어지며,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같이 경험해보는 가운데 자라나서 퍼져가며 증식한다.

소통, 관계, 협업, 공동체 등의 개념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자연스런 매커니즘으로 받아들이고 관심이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만들어갈 때, 소통 방식을 가능한 넓고 깊게 추구하고 싶은 열망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두고 지역 간 교류다, 지역 간 연계 및 협업 방식이다 라는 특수용어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글로벌리즘에 발맞춘 특별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본연적인 희구요, 절실한 필요일 뿐이다. 생각의 구조와 틀의 제약이 심해 소통이 어려울 때는 다른 문화, 언어권과의

소통이 대안이 아닌 생존이 되기 때문이다. 소통의 꺼리는 풍부할수록 좋고, 형태는 다양할수록 좋은 게 아니겠는가.

글쓴이 김희진 뉴욕과 서울에서 문학, 미술사, 뮤지엄학을 공부했다. 구겐하임 미술관 큐레이터실 인턴을 거쳐 1997년부터 독립 큐레이터로 일했다.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해외 프로젝트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일상의 공공성, 대안적 경제 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현장으로서의 미술작업, 공공주체로서의 발언과 수용, 지역 간 네트워크와 연대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2008년 5월에 열릴 멕시코에서의 한국 현대미술전시와 11월에 열릴 〈John Bock〉(아르코미술관, 인사미술공간 공동기획)을 기획 중이다.